

26일 출시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

금융소외계층 100만명 혜택

정부가 20일 내놓은 서민전용 대출상품 '햇살론'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기초생활 수급자, 저신용자(6등급~10등급) 등을 포함해 최대 100만명이 대출혜택을 누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저신용층이 10% 초반대 금리를 적용받게돼 대부업체 등 연 40%대 고금리의 사금융시장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향후 5년간 10조원 규모 대출 보증으로 총 100만명이 햇살론의 혜택을 받아 10년 동안 6조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용 6~10등급 저신용층이 보증대상 = 햇살론의 보증대출 대상은 신용 6~10등급 또는 등급이 없는 저신용층이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저소득 자영업자·농림어업인, 근로자도 보증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대출

생계용 1000만원·창업자금 5000만원 한도

서민층 이자부담 10년간 6조원 경감 기대

받을 수 없어 대부업체 등을 통해 최고 49%의 고금리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금융소외계층이 수혜 대상이다. 정부는 졸업아 보증대출 신청 대상자가 최대 17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연체, 부도 등 건전한 신용 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회생·파산 절차 중이어서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 350만명은 보증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10% 초반 금리최고 5000만원 대출 = 대출은 오는 26일부터 이뤄지며 5년간 10조원 규모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대출금의 85%를 보증하고 서민금융회사가 15%를 책임지도록 하는 방식의 대출이다.

10조원 대출에 필요한 보증재원은 2조원으로, 서민금융사와 정부가 각각 1조원씩을 출원한다.

대출금리는 10% 초반대다. 7월 기준으로 취급금리 상한은 농업·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업권이 10.6%, 저축은행이 13.1%다. 다만 보증수수료를 고려할 때 연 0.85%의 부담이 추가된다.

대출금리도 획기적으로 낮아진다. 대부업 이용자의 평균 대출금리는 작년말 기준으로 41.2%, 저축은행 6~10등급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 4월 기준으로 32.6%였다.

자금용도는 사업운영자금, 창업자금, 생계자금으로 구분하고 용도

에 따라 대출한도를 차등화했다. 사업운영자금은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농림어업인을 대상으로 최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한다.

창업자금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신규 창업자는 물론 기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점포를 구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규 창업자는 정부·공공기관 등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을 확보해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한다. 생계자금은 최고 1000만원 한도 내에서 3~5년 매월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이 이뤄진다. 일용직,임시직을 포함해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 무등록·무점포를 포함해 영업중인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등이 대상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기아신차 'K5' 3D 마케팅

기아자동차가 20일부터 신차 K5의 3D 홍보영상을 전국 10개 지점에서 삼성전자 파브(PAVV) 3D TV를 통해 열리는 '기아차 K5 3D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오는 8월 말까지 전국 지점과 백화점, 삼성 디지털플라자, 기아차 히게오토캠핑장 등지에서 열린다. (기아차 제공)

“SSM 분쟁 절반 자율조정으로 해결”

중기청 175건 접수... 영업 단축·서비스 제한 등 합의

기업형슈퍼마켓(SSM)을 둘러싼 중소기업들과 대형 유통사 간의 상권 분쟁 중 절반이 자율 조정으로 해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2008년 7월 이후 지난 16일까지 중소기업들이 대형 유통업체들의 SSM 출점으로 골목상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사업조정 신청은 175건이다.

이 중 50.2%인 88건은 양측 간의 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됐고, 여러 가지 사유로 조정 요건을 갖추

지 못해 신청이 반려된 사례는 16.5%인 29건이었다.

반면 정부의 강제조정이 내려진 경우는 2.2%인 4건에 그쳤다.

나머지 30.8%인 54건에 대해서는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자율조정은 SSM이 판매 품목이나 영업시간 등을 일부 줄이거나 서비스에 제한을 두도록 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21일 분쟁이 마무리된 전북 전주 효자동 GS슈퍼마켓 사례에서도

이와 비슷한 방식의 합의가 이뤄졌다.

이 SSM 점포는 중소기업들과 구매액이 2만원 이상일 때만 무료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또 화절기에는 오후 11시까지, 동절기에는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하기로 했다.

현재 전통시장 반경 500m 내에서는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가맹점형 SSM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SSM 규제법안이 국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상태이다. /연합뉴스

손보사 경영개선 뒷전... 車보험료만 인상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중고부품 이용 할인

경찰청·환경부 등과 합의 안돼 시행 불투명

하반기 공공요금에 들쭉거리리는 가운데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마저 6~7%가량 오를 전망이다.

하지만, 손해보험업계가 지난 3월 발표한 경영개선 대책 등 자구 노력은 결실이 없어 자동차 보험료 인상을 위한 구실만 마련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과 중고부품 이용시 보험료 할인 정책은 정작 정책 당국과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2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 보험료 인상 최소화를 위한 보험업계 공동의 노력을 이끌어내겠다고 자동차보험 경영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주요 대책으로 '과태료 부과

운전자 할증'과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추진'이 포함됐다.

이 대책에 따르면 무인 단속카메라에 걸려 속도·신호 위반 과태료가 부과된 운전자는 할증 대상이 아니었으나, 앞으로는 할증 대상이 된다. 2008년 무인 단속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신호 위반은 398만건으로 이 중 88%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이 대책이 시행되면 손보 업계에 과태료 부과 자료를 넘겨줘야 하는 경찰청은 필적 뒤에서 반대하는 분위기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는 문제여서 사회적 공감대 조성이 필수인데 (금감원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관련 법규 개정이

우선되지 않고는 우리로서는 검토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 이어 올해 3월 두 번이나 발표된 자동차 중고부품 이용 활성화 대책도 마찬가지다.

금감원은 자동차 수리 시 중고 부품을 사용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겠다고, 이를 위해 중고부품의 품질 인증을 만들고 유통전산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두 차례 회의한 적이 있으나 올해 들어서도 회의한 적도 없다"며 "중고 부품 유통 등은 민간기업이 주도할 일이지 정부가 나서서 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자 할증 문제는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중고부품 활성화 대책은 환경부와의 협력이 원만하지 않아 보험개발원을 중심으로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큰폭 증가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의 5월 중 여신과 수신이 모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발표한 '2010년 5월 중 광주·전남지역 금융기관 여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은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 증가로 전달보다 증가 폭이 확대(+4605억원→+6304억원)됐다.

여신은 비은행금융기관 여신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 전달 감소(-4745억원)에서 큰 폭의 증가(+7790억원)로 전환됐다.

예금은행의 수신은 정기예금이 많이 줄어들면서 증가 폭이 축소(+5319억원→+2574억원)됐고 여신은 중소기업대출 확대 등으로 증가로 전환(-1841억원→+2181억원)됐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수신은 전달의 감소(-714억원)에서 증가(+3730억원)로 돌아섰고 여신은 역시 증가로 전환(-2904억원→+5609억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초복 생닭 월월 날았다

이마트 작년보다 판매 35% 늘어

홈플러스 3일만에 35만마리 팔려

19일 초복을 맞아 대형마트에서 삼계탕 요리용 생닭이 불티나게 팔렸다.

20일 광주 시내계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 12~18일까지 판매된 생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5% 늘었다. 이 기간 오리도 32.0%나 잘 팔렸다.

삼계탕 부재료인 황기와 인삼, 대추 등도 지난해보다 10~13%가량 더 많이 팔렸다.

홈플러스에서 역시 17~18일 주말 이틀에 이어 19일 오후 6시까지 생닭 35만 마리가 판매됐다.

화요일이었던 지난해 초복 직전 사흘간 판매량보다 67% 늘어난 것으로, 19일 저녁 판매량까지 집계되면 증가폭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롯데마트에서도 17일부터 19일 오후까지 닭 30만마리가 판매됐다. 이는 작년 초복 시즌인 7월 12

일부터 14일까지 기간과 비교해 40%, 지난해 같은 기간인 18~20일(토~월요일)과 비교해 3.3배 늘어난 수치다.

이마트 축산팀 박유진 바이어는 "삼복 보양식 물량의 절반 이상이 초복 기간에 판매된다"며 "소비자들이 구매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기획을 통해 물량을 충분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은기기자 emlee@kwangju.co.kr

수강생 모집 스피치 리더십 과정. 교육내용: 1. 스피치란 무엇인가, 2. 스피치 준비 방법, 3. 발표의 중요성, 4. 발표의 두려움 극복, 5. 발표의 자세, 6. 발표의 목소리, 7. 발표의 표정, 8. 발표의 몸짓, 9. 발표의 언어, 10. 발표의 질문. 교육특징: 1. 이론과 실습 병행, 2. 발표 기회 제공, 3. 전문 강사 지도, 4. 발표 실용성 강조. 문의처: 광주광역시 동구 동천동 11-1, 222-2255 / 010-9441-7000

한불화장품 코랑스사업부에서 방문판매 대리점(지사장)을 모집합니다. 모집대상: 1. 20~40대, 2. 고졸 이상, 3. 1년 이상 판매 경험, 4. 1인 가구나 2인 가구, 5. 1인 가구는 월 100만원, 2인 가구는 월 150만원 이상 판매 가능. 모집지역: 1. 광주, 2. 전남, 3. 전북, 4. 경남, 5. 경북, 6. 충청, 7. 호남. 문의처: 02-6394-6074 ~ 6075